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54 호 2007. 11. 22 (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中央宗親會 第18期 定期總會

次期會長에 鍾植 現 會長 滿場一致로 連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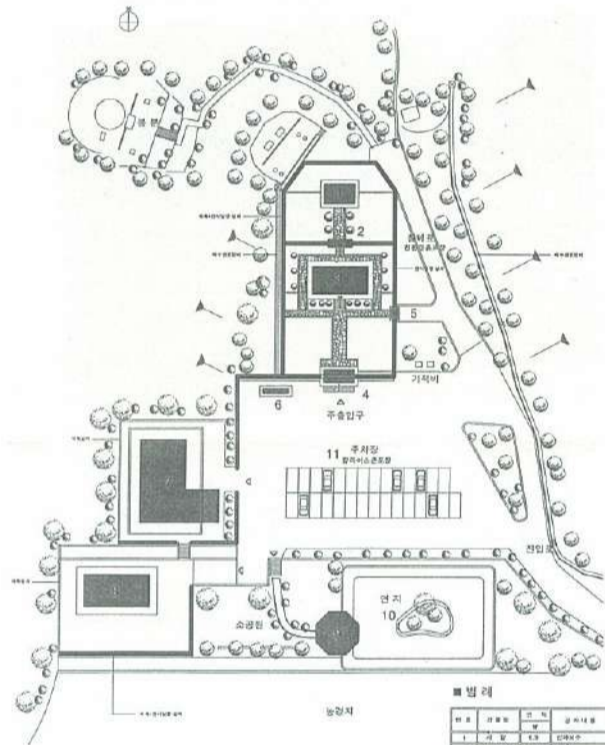
중앙종친회는 2007년 11월 9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묘역 동원재 가락당에서 전국 각처에서 1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봉환 간사장의 사회로 개최된 회의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종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우리 종친회가 우람한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기까지 일가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치하하고 앞으로 시조묘역 성역화 사업

이 마무리 되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는 문화재로서 위용을 떨칠 때까지 일심단결하자고 역설하였다. 이어 간사장의 업무보고와 경남감사의 감사보고를 마치고 제 18기 결산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용상임부회장의 사회에 의하여 임원개선이 들어가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자. 대의원들은 한결같이 입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현 종식 회장을 시조묘역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연임하여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열화와 같은 청을 수렴하여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현 종식 회장을 연임시켰다. 그리고 감사도 연임

시키고 기타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제 19기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이후 향후 사업계획과 기타 토의사항을 토론하고 폐회하였다.



번호	구분	크기	공적내용
1	경당	4.9	신축공사
2	내삼문	2.8	개축
3	관리사	2.0	신축공사
4	주수인구	2.0	신축공사
5	연지	0.9	신축공사
6	팔각정	0.8	신축공사
7	조경공사	100	신축공사
8	소공원	1.0	신축공사
9	문화재 안내판	0.1	신축공사
10	주차장	1.0	신축공사
11	배수로공사	0.1	신축공사

제2차 사업

1. 강당 및 전시실 이전 신축 : 전통목조 한옥
2. 내삼문 개축 및 담장공사
3. 관리사 이전 개축 : 농가주택 기준
4. 단지조성 : 주차장 공사 및 배수로공사 (소공원 조성, 문화재 안내판)
5. 연지 조성공사
6. 팔각정 신축공사
7. 조경공사



회장 개장(改章)

우리 중앙종친회의 현 회장(徽章)이 우리 김문을 상징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고 재현(그리기)하기도 어렵다는 중론이 많아서 회장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개장(改章)하기로 하였으며 제18차 정기총회에서도 무난하다 하여 아래 도형(圖形)과 같이 개장함을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金氏(열매)-후손들은 더욱 빛 낼 것임.

順天(꽃잎)-조상님들 꽃 피웠으며

城隍(꽃받침)-시조부군 우리 김문 여섯고



新羅宗姓 始祖府君 順天金門 여섯고
麗順에서 큰功세워 城隍神이 되셨는지
여러世代 先祖님들 燦然하게 功德쌓아
우리金門 꽃피워서 名門으로 이루셨네
後孫들은 使命다해 金빛열매 맺어서
자랑스런 家門으로 온세상에 빛내리라

公告

順天金氏 秋享大祭 奉行

중앙종친회는 2007년 11월 10일(음10월 1일) 정해년 추향제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 묘역에서 鍾植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장단과 각 지역 종친회 회장 및 파종회 회장 등 경향 각지에서 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시조 묘제는 초헌관에 仁煥(충남금산), 아헌관에 東勲(대구), 종헌관에 龜淵(경기), 축관에 相默(전남해남), 집례에 東星, 그리고 제단에는 초헌관에 仁煥(충남금산), 아헌관에 東根(경북안동), 종헌관에 正泰(전남해남), 축관에 相默(전남해남) 일가로 분정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번 추향제도 한화그룹 升淵회장은 버스를 보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조화를 보내 추모하였으며 참례한 분들에게는 고급수건을 전달하였다.

향족대 헌성금 (2007. 11. 10)					
1. 부산종친회	김인섭	100,000	14. 천안	김상근	50,000
2. 해남남은공파		100,000	15. 상의원정공	김상응	100,000
3. 안동종친회		100,000	16. 광주	김광휘	200,000
4. 보령종친회	김지섭	100,000	17. 대전충남종친회		100,000
5. 김학원(지평공파)		100,000	18. 대전청년회		100,000
6. 해남망미당공종중		100,000	19. 김경재		30,000
7. 대구명친회	김동근	50,000	20. 김창재		30,000
8. 금산	김인환	50,000	21. 김행업부회장님		50,000
9. 해남	김찬수	30,000	22. 김창연		100,000
10. 대구형성공파	김봉원	100,000	23. 김명재		30,000
11. 용인	김창식	100,000	24. 황성공파산문중		100,000
12. 금산	김동원	30,000	25. 영남종친회		100,000
13. 경기	김종원	50,000			



典書公 時享祭 奉行

典書公(諱 乙財) 墓 時享(時享)을 11월 12일(음 10월 3일)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 모신 단소(壇所)에서 초헌관에 炳學, 아헌관에 文植, 종헌관에 烈誠, 그리고 집례에 炳壽로 분정하여 단제를 봉행하였다.

襄景公 時享祭 奉行

襄景公(諱 承靈) 墓 時享은 11월 12일(음 10월 3일)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공의 묘역에서 전국 각처의 후손들이 참사한 가운데 초헌관에 漢哲, 아헌관에 參源, 종헌관에 大永, 대축에 東基로 하여 道淵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西南 끝자락의 海南지방 후손들은 대형 버스로 와서 참사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었다.

默齋公 時享祭 奉行

默齋公(諱 宗漢)의 時享은 11월 14일(음 10월 5일) 금산군 부리면 도파리 공의 묘역에서 초헌관에 仁煥, 아헌관에 相濟, 종헌관에 東錫, 축관에 昌熙로 하여 東元 집례로 엄숙히 봉행하였다.

節齋公 時享祭 奉行

節齋公(諱 宗瑞)의 시향제를 11월 11일(음 10월 2일)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종산(宗山)에서 조고와 고위되시는 持平公과 都摠制公 묘사에 이어 초헌관에 길원, 아헌관에 순환, 종헌관에 용석으로 분정하여 엄숙하게 봉행하고 많은 제관을 음복하여 공의 유덕을 기리었다.

判書公 時享祭 奉行

判書公(諱 有儉)의 시향제를 11월 4일(음 10월 5일) 보령시 웅천면 두룡리 공의 묘역에서 초헌관에 仁遠, 아헌관에 仁聲, 종헌관에 學男, 대축에 志變으로 하여 많은 후손이 참사한 가운데 長煥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正郎公의 3位 壇祭 奉行

11월 19일(음 10월 10일)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종산에 소재하는 단소(壇所)에서 초헌관에 相默, 아헌관에 台鉉, 종헌관에 賢熙, 축관 相實로 하여 贊洙 집례로 단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忠貞公 時享祭 奉行

忠貞公(諱 有讓)의 時祀를 11월 13일(음 10월 13일)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공의 묘역에서 전국 각지의 50여 후손들이 참례한 가운데 초헌관 東勲, 아헌관 明在, 종헌관 行燁, 축관 重溶 등 분정되어 春熙집례로 숙연하게 봉행하였다.

尙衣院公 墓 時享祭 奉行

尙衣院公(諱 嗣源)의 묘사를 11월 13일(음 10월 4일) 2006년 이장 모신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소재 종산의 묘역에서 각처에 거주하는 후손들 50여인이 참사한 가운데 초헌관에 明燮, 아헌관에 商玄, 종헌관에 商應, 축관에 東學으로 하여 明在 집례로 엄숙히 봉행하였다.

南隱公 時享祭 奉行

南隱公(諱 孝友)의 시향제를 11월 9일(음 10월 10일)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공의 많은 후손이 참사한 가운데 초헌관에 正泰, 아헌관에 在熙, 종헌관에 相萬, 대축에 相實, 贊洙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監察公(諱 嗣昌)의 時享祭 奉行

지난 11월 11일(음 10월 4일) 여준군 가남면 연대리 연대산의 공의 선고(先考) 묘 계하의 묘역에서 묘갈, 문관석 등 석의를 새로이 갖추어 놓은 가운데 초헌관에 東柱, 아헌관에 東哲, 종헌관에 東俊, 축관 重溶으로 하여 春熙 집례로 근엄하게 제례를 올렸다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金公墓表

0 前面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金公諱嗣昌
之墓
配淑人000氏 合祔西坐

0 後面

我監察公之墓는但於家乘에 有墓在先考墓下云而今不可考之言則必似歸乎永不傳之境이었는데壬午年(二〇〇二)秋에任實派(千寶後孫)春熙族姪이與屯德居洙鍾光洙東湖全州居東勳梧枝居東彦과往驪州忠貞公墓下하여 左顧右盼하고細探密察하여開一處確認監察公之墓而成墳하고越五年丁亥(二〇〇七)秋에將具石物爲計하니五百餘年子孫之恨이依任實派解之로다於是에春熙族姪等이使東柱로明其尋墓之事實하고竝作其墓道之文字케하거늘東柱는得聞尋墓之言에喜不自勝이라雖不文이나何敢辭焉이리요謹依譜牒則公은姓金諱嗣昌本貫順天이고始祖諱摠은新羅憲安王時에爲引駕府別監하시다新羅末에는引駕公之子諱裕가以將軍으로擊退侵羅之逆釐하고臨忠武이시며入高麗하여는忠武公之八代孫諱德洪이始仕高麗하여官至太保하고臨文成이시며歷二代至諱希哲하여는仁宗朝에서爲吏部尙書하고臨文忠이시다入李韓하여는諱承滄는初名乙寶인데太宗朝에서每遇旱에承命禱雨하여無不應이라故賜是名이며官至議政府左議政이요臨襄景이시며諱宗瑞는號節齋諱忠翼으로出而爲將하여開拓六鎮하고入而爲相하여安衛朝家하니是爲公之親祖與傍祖也나라考諱有諫은以陽村權近門人으로世宗朝에서爲承政院都承旨요封順平君하고臨忠貞이시며此는貞夫人驪興閔氏이시다公은四男三女中以長男生하여文宗朝에서生進俱中하며文班則入而爲通訓大夫司憲府監察하고出而爲成興靈光之牧民官하여有治績하고以清白으로名하며武班則一時爲忠義衛司正하여至副司果하였으나癸酉士禍時에以節齋公之親族과端宗妃定順王后宋氏之外戚故로禍及切迫하자寮官遊山水間하며與生六臣金時習南孝溫으로結交하셨다宋氏之外戚云者는卽襄景公之婿가爲礪山宋復元이고復元之子가爲玆壽이고玆壽之女가爲定順王后故也나라配는000氏인데父는00이요祖는00이며外祖는00이다墓在京畿道驪州加南面蓮臺里蓮臺山先考墓下西坐原하며與配合葬하다有二男一女하니長男諱以權은爲建功將軍行忠佐衛中部司直이요次男諱以經은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이었는데癸酉士禍時에皆寮官退住全羅道南原하고終不就官하시다婿彦陽金四知는爲正言하다司直公은娶陽川許伸之女하여有三男二女하니長房諱萬寶는爲禦侮將軍行忠佐衛司正이요二房諱億寶는爲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이요三房諱千寶는爲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直이었으며長婿全州崔孝儉은爲別坐요次婿安山金璫은爲牧使였다副護軍公은娶仁寧尹氏하여有二男三女하니長子諱億錫은爲禦侮將軍하고以孝行으로贈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하며次子諱連錫은爲禦侮將軍하고이婿는李榮幹林伯壽朱自洙이다婿正言公은有四男三女하니男은世琛世珩世玩世琬이고婿는柳連孫崔淑晉弼碩이다曾玄以下는繁不可盡記로다

檀紀四千三百四十年 丁亥(二〇〇七) 九月 日

十七代孫 前韓國精神文化研究院 專門委員 東柱 謹識
十八代孫 春熙 謹書
十七代孫 東勳 監役

金春熙 謹呈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말 한마디가 갖은 의미는 천냥보다도 훨씬 더 귀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돈이 아니라 사랑을 잃고 얻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얻어진 물이라는 말이 있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기로는 "내뺨은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얻어진 물이

야 행주나 걸래에 짜서 담으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입에서 잘못나간 말은 거두어들이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기쁜 말을 들었을 때 즐거움과, 언짢은 말을 들었을 때의 불쾌함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기쁜 말은 목말랐을 때의 생수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언짢은 말은 우리 몸과 마음으로 퍼져가는 독과 같이 우리를 깊이 병들게 합니다. 문제는 그토록 금과 같이 중요한 말을 우리는 늘 사용하며 사는데 대개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말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바베포족 사회에는 거짓으로 남을 헐뜯는 말이나 공갈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를 행위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자연속에서 순박하게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공장에 그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은 빙 둘러서서 한사람씩 돌아가며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 내용은 죄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이나 칭찬의 말을 하다 보면 죄지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과 그가 했던 좋은 일들 그것에 대한 감사 등이 모두 열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과장이나 가벼운 농담을 해서 안 됩니다. 진지하게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칭찬이 한 바퀴를 다 돌면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서서히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는데 마을 사람들은 한명씩 나가 눈물을 흘리는 그를 껴안아 주며 위로와 격려를 하며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삼불금하라는 말 중 입불조심이 큰 힘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큰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말이 모여진 사회의 말은 더욱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없애고 긍정적인 말을 회복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삶을 밝게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 모두가 상대를 해치는 실언과 망언 그리고 공갈협박으로 죄를 범하여 망신당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깨달음의 삶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삶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왜 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에 대한 객관성 있는 답을 찾으려고 수천년 동안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왔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답은 얻지 못 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도 달라서 각기 다른 인생관을 갖게 되는 듯싶다. 어떻게 살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다.

성서에서 제 일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주님이신 하느님을 찾으려고 무수히 많은 책과 씨름하면서 오랜 세월 방황해 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한 생각에 머물게 되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생명이었다. 내 생명 그것이 내 주님이요 내 하느님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와 내 생명이 하나이듯이 예수께서도 하느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석가모니께서도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다. 깨달은 자들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겨 보며 내가 찾은 내 주님 내 하느님께 감사하며 생명이 내 주님임을 모르고 했던 지난날 보다 알았으니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제 일 계명을 실천하리라 다짐해 본다.

우리는 결국 생명을 위해 살고 생명을 위해 죽는 존재다. 인류가 생명에게 그토록 가장 큰 존엄성을 부여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신 하느님, 하느님이신 생명께 오직 순종할 뿐이다. 인류는 존엄의 극치인 생명을 알려고, 그 신비를 밝혀 보려고 노력했으나 밝혀내지 못하고 다만 생명이신 하느님을, 전지전능 하신 분, 영원 불변성인 분,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분, 절대자이며 초월적인 분, 아니계신 때가 없고 아니계신 곳이 없으신 분..... 인간의 이성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온갖 신비성으로 감싸여 있음을 감지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같은 신비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 관해 깊은 명상을

해 보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없었다. 이 없음을 무(無) 또는 공(空)이라 한다. 지금 나는 분명히 여기 존재한다. 이 있음을 유(有) 또는 색(色)이라 한다. 또한 나는 언젠가 죽음을 통해 없어진다. 이것은 유(有)가 무(無)로 변하는 것이다.

무(無)에서 생겨난 유(有)가 다시 무(無)로 되니 이것은 유무(有無)가 순환되는 것이다. 순환이란 어떤 하나가 이것에서 저것으로, 저것에서 이것으로 변화됨을 말하는 것이니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닌 어떤 하나, 이것은 언어 문자로 표현 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노자는 도(道)라 했고 석가는 중도(中道)라 했으며 예수는 하느님이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어떤 하나가 無에서 有로 有에서 無로 변하니 이것이 곧 유무일여(有無一如)요 색즉시공(色卽是空)인 것이다.

그 어떤 하나를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석가나 예수께서 그토록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뜻을 알만도 했다. 有 + 無 → 전체(全體), 전체가 갖는 성품이 곧 그것이다. 전체 속에는 有도 들어있고 無도 들어 있으니 有라 할 수도 없고 無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전체가 갖는 성품을 도, 중도, 하느님, 생명이라 하는 것이다. 전체는 하나요, 절대이며 영원불변성을 갖는 초월적 존재다. 전체는 불변성의 진리이고 전체를 이루는 개체는 언제나 변화하는 가변성의 진리다.

생명은 둘이 하나를 이룰 때 생겨지는 성품이니 둘을 하나로 하는 것은 사랑이기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둘이 하나를 이루니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며 하나는 하나가 아니고 둘인 것이다. 전자를 不二法이라 하고 후자를 一心二門이라 하는 것이다. 둘이 하나인 것을 깨달아 이것과 저것에 매이지 않음을 대 자유인이라 하는 것이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죄진 생명은 밝음을 두려워하여 빛을 피해 어둠속으로 가서 방황하지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생명은 떳떳하여 밝음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상의원공과 16대손 김광연



送年과 新年

“ 그 時間속에 有益한 存在로 變해야 ”

똑딱거리는 분초의 기초시간 단위가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고 또 일주일, 그리고 한달이 지나면 계획했던 일들이 빼곡히 적힌 달력을 떼어 낸다. 그러기를 한달, 두달, 열두번째 달력을 떼어낼 때면 일년이란 세월을 지내 보내는 송년이 된다. 지내온중에 좋았던 일, 잊어버려야할 사건들을 날려 보내기 위해 송년의 밤을 열어 다정한 친구들과 더불어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해의 과제를 토론도 한다.

이 년력(年曆)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태양력(太陽曆)과 태음력(太陰曆)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록한 역법(曆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절기의 표시등을 참고로 둘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달은 어둠속에서 빛을 주고 사람들의 감정과 의미심장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젊은 남녀들은 달빛 아래 사랑을 나누고 시인들은 달에게 시와 노래를 바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달아 달아 둥근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 내고 은도끼로 찍어 내어 초가 삼간 집을 지어 늙으신 부모 모시고 천년만년 살고지고.....(中略)”. 한 시가 있었다. 젊은이들의 애창곡 중에 “슈베르트의 세레나데(小夜曲)에”도 애절한 달빛아래서의 노래가 있다. “명랑한 저 달빛아래 들리는 소리 무슨 비밀 여기 있어 소곤거리나 만날 언약 맺은 우리 달 밝은 오늘 우리 서로 잠시라도 잊지 못하리 잊지 못하여 수풀사이 덮인 곳에 따뜻한 사랑 적막한 밤 달빛아래 꿈을 꾸었네...(中略)등이 있다.

태양력은 그 시작이 BC(예수탄생 전 Before Christ)때에는 일정치 못했다. 머나먼 우리의 조상들은 태양과

달의 정구적 운행에 대해 전수받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숫자 세는 법과 간단한 산수를 터득하고 밤하늘의 운행을 오래토록 면밀히 관측하고 나서야 달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양 나라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건일로부터 새해를 계산할 것이 지금은 거의 AD(예수탄생 후 Anno Domini)서기를 사용하고 있다.

년력(年曆)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계절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적응하는데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며 겨울이 오고 또 반복되는 년력속에 지내면서 한해를 보내고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다.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생활은 고질화되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속된 생활의 연속은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게 되어 버린다. 품위(品位)있는 생활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생활에 가치를 찾게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신약성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는 제자들과 어느 지방을 지나는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장사를 지내고 갔으면 합니다.”라고 물었다. 예수는 “죽은 사람은 죽은자들끼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선하고 올바른 사회)를 선포하자.”고 서두르며 긴장된 상태의 모습을 보였다. 오랜 로마의 통치하에 암흑과 같이 침체된 유대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임을 나타낸 말이며 죽은자들이란 말은 소망이 있는 무리를 지칭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나 종족도 생물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분화(未分化)에서 분화로 동질에

서 이질로 하등에서 고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존재가되야 역사의 흐름의 진화속에 충실히 남을 수 있다고 미래학자들도 말한다.

나는 종친회 회원이나 집성촌 유익한 집단으로 변화에 도움이 될런지 생각하며 오래된 한 지방의 집성촌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북한의 평북 정주에 약 30호 정도 모여 사는 고령촌이란 집성촌이 있었다. 그 주변에는 동쪽에 50호정도, 서쪽에 60호정도 다소 거리를 두고 타성(他姓)이 섞여 살고 있었다. 전체 동리에 어떤 문제의 해결을 할 때면 소수지만 단결된 순천김씨촌에 눌린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심지어 주변타성 사람이 정장을 하고 김씨촌 앞길을 지날 때는 갖(모자)을 쓰고 가면 상놈이 양반동네 앞을 갔을 쓰고 갈수 없다고 갖을 베껴버리곤해서 갖을 감추고 김씨 동네를 지나갔다고 했다.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가. 또한 타 동네 젊은이들이 술이 얼근히 취해서 김씨 동네를 지나다가는 버릇없는 놈이라고 매를 맞고 혼쭐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타성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서쪽동리와 경계가 되는 언덕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김씨촌 동의 없이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풍수학상 김씨 동네 뒷 언덕에 교회를 세워 김씨동네에는 악운(惡運)이 미친다고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교회를 헐어버리자고 하여 작당을 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몰래 교회 건물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 김씨 집성촌의 횡포는 너무나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크게 대항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청년들이 교회 주변을 돌다 타성 처녀들이 눈에 띄었다. 김씨 집성촌에서는 예쁘고 귀여운 처녀가 있어도 일가친척이

기 때문에 말을 걸지도 못하다가 교회에 나오는 타성동네 처녀들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찬송가도 배우고 기분이 좋았다.

그 무렵 교회에서 특별성회(부흥회)를 열고 아주 신령(神靈)한 여자부흥사(復興事)선생을 모시고 일주일간 집회(集會)를 계속했는데 부흥사께서는 참혹하게 보이는 집성촌 청년들을 향해 온 우주(宇宙)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經綸)속에 참되게 살아야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사랑만이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시며 공산당이 주장하는 혁명적인 수단으로 계급투쟁을 통한 공평과 평화는 역사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외치셨다. 그 생명력이 넘치는 설교에 귀가 뚫린 김씨촌 청년들 전부가 굴복하고 참회(懺悔)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열심히 교인으로 변한 청년들은 교회건물을 수리하고 이웃동리(洞里)에 형편이 어려운 독고 노인들을 찾아 식량과 쉼감을 마련해주고 옹은 일에 앞장서서 선한 일들을 찾아 실행했다. 그러므로 배타적으로 이웃동리에 횡포를 가하던 순천김씨 집성촌의 그릇된 인상을 사라지게 했다. 그 후 공산당의 탄압이 심해지자 청년들 20여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구사일생으로 남한으로 월남하여 본보에 보도됐던 대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생활도 충실히 봉사하다 애석하게도 고향을 못가본채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혹시 종친회원들이 성서에서 말하는 소금처럼 유익된 생을 영위(營爲)하려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한다.

金鳳培(前CBS大邱局長)



순천(順天)과 마음 공부

삶은 순환이다. 희로애락의 순환이고 길흉화복의 순환이다. 행불행의 순환이고 종내에는 생로병사도 순환의 일환이다.

그래서 복은 화가 앞드린 상태고 화는 복이 웅크린 모양이라고 하였다. 고진갑래나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도 삶의 순환을 의미한다.

삶이 행복에 오래 머무르면 나태와 방종과 교만에 빠지기 쉽고 불행에 정체가 되면 실의와 좌절과 질병으로 고통받기 일쑤다. 그러므로 삶은 사계절처럼 순환해야 하고 그 순환의 계절에 잘 적응하여 살아야 한다. 불행의 계절에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행복의 계절을 슬기롭게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행복의 계절에 허송세월이나 기고만장하지 말고 불행의 계절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순리여 지혜며 건강하고 경건한 삶이다.

이 순환의 궤적이 운명(運命)이다. 운명은 생명의 움직임이요 생명의 주기적 운동이다. 운명에 순응하든 운명을 극복하든 그것은 각 개인의 자유의지다. 다만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운명과 동행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 순천(順天) 곧 하늘 뜻에 순종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면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해야 여유롭고 복되고 운도 따른다. 운명이나 천명을 거스려 각박하게 살면 마음이 불편하고 건강도 나빠지며 운도 역행한다.

순천자(順天者)는 번영과 생존을 누리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는 맹자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하늘이 주신 것이 성품이요 성품을 따르는 것이 도(道)요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이라는 중용(中庸) 첫장의 이 말은, 하늘 뜻[天命]과 각자 주어진 성품을 따라[率性] 사는 길[修道]이 마음 공부임을 말하고 있다.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 또는 그 어느 것에서나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외적 조건보다 마음 안에 행복이 있음을 이른다.

마음도 순환해야 한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자연스레 순환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너무 무디면 우울증 또는 염세증에 걸릴 염려가 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되 평정심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평정심과 항심(恒心),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마음 공부와 냉철한 이성적 수양을 쌓아야 한다. 나는 마음의 순환과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항희(恒喜), 항도(恒肅), 항사(恒謝), 항심'으로 좌우명을 삼고 있다. 조금 풀어 말하면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감사한다. 항상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마음을 가진다'의 뜻이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18장의 말씀에 맹자의 '항심'을 덧붙인 것이다.

나의 이 좌우명은 천명(天命)과 순천(順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쁨을 버리고 근심에 사로잡힌 삶은 하늘 뜻을 거역하는 짓이다. 세상의 어렵고 걱정된 일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다. 이 하늘 뜻과 명령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마음다스리기로 필생의 마음 공부다.

나아가 모든 일에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며 근신과 기도하는 일이다. 서로 덕을 권면하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전되게 하여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 몸과 운명을 하늘 뜻에 맡기고 생사이해에 태연하며, 인사를 다하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사의 도리를 깨달아 안심을 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또한 나의 삶이 목표요 마음 공부다.

나는 요즘 탁구를 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탁구는 단순한 실내 스포츠면서 치면 칠수록 강한 체력과 높은 기량이 요구되는 운동 수련이다. 기량이 조금씩 진전될수록 그만큼 재미도 병행되어서 승부에 집착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승부에 지나친 집착과 졌을 때의 쓸쓸한 기분을 해소하거나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수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운동과 재미를 겸한 소일거리일 뿐이므로 지든 이기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재미있게 적당히 치면 되는데 몰두해 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상대가 친 탁구공이 이쪽에 넘어와 바운드된 후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적어도 3초 이상은 되므로 낙하점을 보아서 쳐야 되는데 그만 다급하게 치다가 범실(凡失)을 하고 만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박자 느리게, 천천히 빈 곳을 찾아, 그리고 직선 타구가 아니라 회전 타법으로 쳐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막상



실행 단계에서는 안되는 것이다. 벌써 몇 년째 이 공부를 하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탁구 기량이 진전되지 못할뿐더러 늘 어렵고 채워지니 않는 부족함을 느낀다. 이는 내 성품이 수양이 덜 된 탓이요 조화로운 마음의 길을 걷지 못한 까닭이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안타깝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러는 상대방의 뛰어난 기량에 압도되거나 위축되어 평정심을 잃고 난조를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때의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골고다의 길'이라는 노랫말을 지어 '황성옛터'의 곡에 붙여 흥얼거리고는 한다.

골고다의 험한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주님 흘린 보혈에 이몸을 적셨네
아, 거룩한 그 사랑에 나 구원 받아서
영생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 부르네

네 일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도 담대하라
아, 권능의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니
용기와 자신감으로 정정당당 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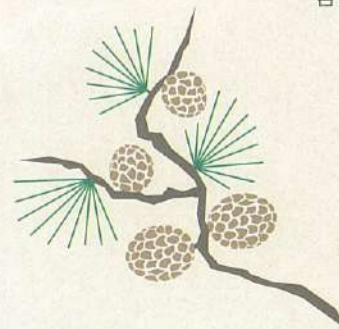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두려워 말지니
환란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아, 주님만 경외함이 민복의 근원이니
천국백성 영광된 몸 죽음인들 두려우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장부되어
젓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들어가리
아, 생사복 주관하신 주님만 의지하여
하늘나라 이르도록 영광 찬송 부르세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한다. 기도는 전능자의 힘을 얻기 위한 간구지만 때로는 자기 위안이나 자기 암시가 되기도 한다. 기도의 성과를 올리려면 먼저 내 마음의 때나 먼지부터 씻어내야 한다. 하늘이 내려주신 성품에 자꾸만 내려 쌓인 물욕, 과시욕, 승부욕 등과 순리를 따르지 못한 성급함이나 험기 따위의 때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그 먼지들이 내 성품(마음)에 앉지 못하도록 정성을 다해 본래의 성품을 유지해야 한다. 그 길이 도(道)를 닦는 것이요 내 자신의 교육이며 수련이고 기도이다.

세상의 갈급한 욕망들로 찌든 때를 닦아 여유로운 성품의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한 후에야 탁구공 하나라도 제대로 치게 될 것이다. 작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서 어찌 공 하나 제대로 치기를 바랄 것인가. 우선 승부욕에서 놓여나도록 마음을 비우자. 항상 깔고 닦고 배운다는 겸손한 마음자세를 잃지 말자. 어리석은 내 마음 씻고 또 씻어 명경 지수처럼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되기를 간구해 본다.

김종현(수필가, 남은공 16대손, 시조 42세)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7년 9월 1일부터 ~ 2007년 11월 30일까지

부회장

1. 김병선 2007. 9. 27 대전광역시 동구
2. 김보연 2007. 10. 1 경기도 고양시
3. 김삼근 2007. 10. 2 서울특별시 노원구
4. 김정순 2007. 10. 9 광주광역시 화정동
5. 김지섭 2007. 11. 10 충청남도 보령시

이사

1. 김동현 2007. 9. 17 경기도 성남시
2. 김정식 2007. 9.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김인환 2007. 9. 28 충청남도 금산군
4. 김영일 2007. 10. 1 경기도 안산시
5. 김종원 2007. 11. 9 경기도 양주시

대의원

1. 김광주 2007. 8. 31 전라북도 광주시
2. 김해수 2007. 10. 1 부산광역시 남구
3. 김성환 2007. 10. 15 경상북도 영천
4. 김장환 2007. 11. 10 충청남도 보령시

운영위원

1. 김학순 2007. 9. 5 전라남도 순천시

고문

1. 김창연 2007. 9.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2. 김명규 2007. 11. 5 울산광역시 남구

이사

1. 김경남 2007. 11. 10 경기도 안산시

회원

1. 김기석 2007. 8.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2. 김귀순 2007. 8.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3. 김낙희 2007. 9. 7 부산광역시 남구
4. 김동욱 2007. 9. 14 경상북도 경산시
5. 김익희 2007. 9.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6. 김상우 2007. 9. 27 경기도 용인시
7. 김병욱 2007. 9.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8. 김경영 2007. 9. 28 경기도 동두천시
9. 김철희 2007.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10. 김동근 2007. 9. 28 경기도 고양시
11. 김성희 2007. 9. 28 경기도 파주시
12. 김익훈 2007. 9. 28 경기도 의정부시
13. 김남수 2007. 9. 28 경기도 연천군
14. 김임용 2007. 9. 28 대구광역시 동구
15. 김상희 2007. 9. 28 광주광역시 동구
16. 김동준 2007. 10. 1 서울특별시 도봉구
17. 김동현 2007. 10. 1 서울특별시 성동구
18. 김장호 2007. 10. 1 강원도 춘천시
19. 김형연 2007. 9. 27 경상북도 포항시
20. 김종구 2007. 9. 27 경상북도 예천군

21. 김동우 2007. 10. 1 대구광역시 달서구
22. 김동이 2007. 10. 1 울산광역시 북구
23. 김동연 2007. 10. 2 경기도 고양시
24. 김길연 2007. 10. 1 부산광역시 동구
25. 김종삼 2007. 9. 28 경상북도 안동시
26. 김인좌 2007. 9. 28 충청남도 부여군
27. 김순옥 2007. 9. 28 전라남도 해남군
28. 김동수 2007. 10. 1 경기도 연천군
29. 김상심 2007. 10. 4 경기도 고양시
30. 김방윤 2007. 10. 2 경상북도 포항시
32. 김상호 2007. 10. 4 경상북도 포항시
33. 김동원 2007. 10. 5 경상북도 경주시
34. 김지일 2007. 10. 8 경기도 안산시
35. 김해연 2007.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36. 김상열 2007. 10. 8 경상남도 김해시
37. 김남술 2007. 10. 5 전라남도 해남군
38. 김성남 2007. 10. 8 전라북도 익산시
39. 김형준 2007. 10. 8 경상북도 영천시
40. 김영환 2007. 10. 10 경기도 용인시
41. 김동철 2007. 10.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42. 김유동 2007. 10. 11 부산광역시 남구
43. 김동운 2007. 10. 11 경상북도 문경시
44. 김영환 2007. 10. 12 경상북도 문경시
45. 김득수 2007. 10. 15 대구광역시 북구
46. 김무원 2007. 10. 16 전라남도 해남군
47. 김병혁 2007. 10.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48. 김만환 2007. 10.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49. 김수연 2007. 10. 22 인천광역시 서구
50. 김상은 2007. 10. 19 충청남도 천안시
51. 김완석 2007. 10. 22 광주광역시 광산구
52. 김수효 2007. 10.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53. 김연식 2007. 10. 25 경기도 용인시
54. 김성희 2007. 10.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55. 김종낙 2007. 10. 29 경기도 이천시
56. 김학연 2007. 10. 25 경상북도 문경시
57. 김동국 2007. 10. 31 경기도 고양시
58. 김상욱 2007. 11. 12 경기도 고양시
59. 김용흠 2007. 11. 12 경기도 남양주시
60. 김동남 2007. 11. 10

무명인

1. 2007년 9월 17일 농협/신문농협
2. 2007년 9월 28일 새마을금고/갈산동지점
3. 2007년 9월 28일 하나은행/용전동지점
4. 2007년 10월 4일 농협/고양저동지점
5. 2007년 10월2일 농협/서안동지점
6. 2007년 10월 09일 농업/철보지점
7. 2007년 10월 25일 기업은행/하안동지점
8. 2007년 10월 29일 농업협동/금촌농협
9. 2007년 11월 5일 국민은행/교대역지점
10. 2007년 11월 6일 우리은행/석관동지점

한화금융프라자

꿈에 그리



생활 속에서

행복이 따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금융에서 제조/건설, 서비스/레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생활 속에 행복을 더하는 한화가 되겠습니다.

